

한반도 평화 거대담론에 견제론 약발 안먹혔다

광역단체장

더불어민주, 17곳 중 14곳 석권
자유한국, 경북·대구 겨우 지켜

13일 치뤄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내세운 남북평화론과 문재인 정부 성공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당이 선거기간 내내 내세웠던 문정부의 '경제실패론'과 '일당 독재 견제론' 보다는 대안없는 보수를 심판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안철수·유승민 공동대표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발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민주당이 석권한 것으로 예측했다. 자유한국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의 경북과 대구를 겨우 지키는데 머무른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선거'로 규정하고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 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반도 평화의 여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주미에 대표는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5월 31일 서울 중랑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줘 평화와 번영이 이뤄지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도 "힘을 합하면 대한민국 통일이 앞당겨진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또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파주를 찾아 "파주가 대한민국 끝이 아니라 평화 공동체 관문이 될 것"이라고 하며 남북평화론을 강조했다.

주 대표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에도 "또다시 냉전세력과 국정발목을 잡는 세력에 지방 살림을 맡길 수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선거기간 내내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 정권은 소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앞세웠지만 결과는 참담한 지경"이라며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국민 소득은 감소했고 경제 성장 엔진은 꺼져 버렸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 동안 환상에 불과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개표방송 출구조사를 지켜보던 중 눈감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망쳤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선거 중반 일당 독점 체제의 위험성을 부각하는 '문재인 정부 견제론'으로 선거 분위기를 바꾸는데 안간힘을 썼다. 또한 지방선거 하루 전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평가에 대해서도 실속 없는 회답이었다고 혹평하며 북미정상회담 효과 차단에 주력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북미 정상이 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 대해 "CVID(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도 없고, 구체적인

북핵폐기 방안과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도 없는 합의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금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결과로 우리 안보도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다"면서 "오늘 반드시 투표해서 깨어있는 국민의 힘으로 안보와 경제를 바로잡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야당의 이 같은 호소에도 민심은 오히려 대안 없는 보수를 심판함에 따라 향후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안철수·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등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최승훈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자유한국당 대구광역시당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오른쪽)와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앞 줄 가운데) 광주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광주 서구 선거캠프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가 13일 오후 전남 순천시 조례동 선거사무실에서 6·1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부인 정라미씨의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환호' 자유한국·바른미래 '침울'

출구조사 결과에 희비 갈린 與野

6·13 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했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각 당은 '환호'와 '침울'로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 압승 예측에 뜨거운 환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제7회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17곳 중 14곳 광역단체장을 휩쓰는 등 압승이 예상되자 잔칫집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TV 화면에 '광역단체장 14곳 승리' 자막이 뜨자 주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와아!"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환하게 웃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비롯해 후보들의 승리가 예상되는 수치가 하나씩 소개되는 동안에도 환호성은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총력을 다했던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비롯해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송철호 울산시

장 후보의 승리 예측이 흘러나오자 환호성과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재보선 예측 결과 서울 송파를 최재성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자 환호성은 다시 커졌고, 상황실에서 함께 개표를 지켜보던 최 후보는 주 대표와 악수하며 기쁨을 표현했다.

◆한국, 탄식조차 없는 침묵

자유한국당은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탄식조차 없는 침묵 속에 빠졌다.

오후 6시 정각, 한국당의 '참패'를 예측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종합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와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홍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출구조사 자막이 뜬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눈을 감았다 뜨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홍 대표는 10분가량 출구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방송뉴스를 지

켜보다 상황실을 떴다. 홍 대표는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에게 "조금 있다가(하겠다)"라고 짧막한 답변만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보수 혁신·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오늘 그 결과로 여실히 나온 것 같다"며 "말이 필요 없이 모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당 수습 방안에 대해 "내일의 태양은 내일 떠오르지 않겠느냐"며 "오늘까지는 어떤 이야기도 하기 어렵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바른미래, 광역단체·재보선 '0석' 침통

바른미래당은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된 방송3사의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선 출구조사 결과 전패 위기에 놓이자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특히 당 전체가 사활을 걸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게조차 밀려 3위에 그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충격이 더욱 큰 모습이었다. /이범종·김정정 기자 joker@

6·13 투표율 60%... 역대 두번째 기록

전남 69% 최고·인천 55% 최저

6·13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60%대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유권자들이 여당의 남북평화론과 문재인 정부 성공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열린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1회(68.4%) 이후 줄곧 50%대에 머물렀다. 2014년 6·4

선거 당시 투표율은 56.8%였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은 20.14%를 기록한 사전투표에서 예고됐다.

26.06%인 지난 대선을 제외하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12.19%), 제6회(2014년 6·4) 지방선거(11.49%)의 두 배 수준이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전라남도가 69.3%로 제일 높았다. 반면 인천광역시 55.3%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 6·4 선거 당시 투표율은 전남이

65.6%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52.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5번의 선거 가운데 투표율 70%를 넘긴 선거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75.8%)와 제19대 대통령 선거(77.2%) 뿐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60%를 넘기지 못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54.2%,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58%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투표율도 50%대를 유지해왔다. 2010년 54.5%였던 투표율은 2014년 2.3%포인트 오른 56.8%를 기록해 60%를 한참 밑돌았다. /이범종 기자